

열린신문

2026 vol. 373

JUNE 6월호



말씀 마주보기

‘요단강’보다 ‘일곱 번 씻음’에 주목하라

열왕기하 5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됨을 보여 줍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은 권세와 명예를 지닌 큰 용사였지만, 동시에 나병으로 인해 수치와 단절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회복은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여종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 소녀는 자신과 가족의 삶을 무너뜨린 나아만을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길을 담대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작고 낮은 자의 믿음과 간절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협과 시비로만 받아들입니다. 이 대비는 위기의 자리에서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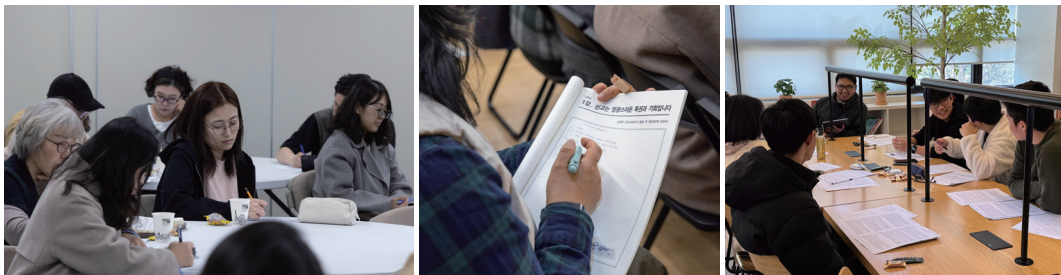
마침내 엘리사를 만난 나아만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선지자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단순한 명령만을 전합니다. 이는 나아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요구였고, 그가 기대하던 화려한 기적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의 물에 주목해서 분노했지만, 엘리사가 강조한 것은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일은 번거롭고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반복 속에서 나아만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이 명령에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아만의 치유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사건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는 행위는 나아만의 육신뿐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가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둘째, 일곱 번의 씻음은 나아만의 소망을 삶의 간절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는 요구였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무 준비 없이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에서 경험됩니다.


결국 나아만의 치유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고, 강의 수질이 아니라 순종의 깊이의 문제였습니다. 물만 바라보는 신앙은 불평으로 끝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번거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요단강’보다 ‘일곱 번 씻음’에 주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과 은혜를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사무국 편집주간 이성도 최선미 취재팀 김환 신미숙 이숙영 최희주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3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방배동 예배당을 거쳐 2002년 4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회복된 성도가 가정을 살린다/회복된 가정이 교회를 살린다/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는 목회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3로 제보 바랍니다.

 본문과 오늘

비느하스의 창과 하나님의 마음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오늘날 세상에는 곳곳에 분노가 넘쳐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용서와 사랑만 강조하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약 3400~3500년 전 인물이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문화와 타협하며 죄악에 물들어 가던 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로운 분노를 품었습니다.

바알브올의 덫에 빠진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 앞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두려워하여 주술사 발람을 불러 저주하게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세 번이나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저주 계획이 무산되었지만, 발락과 발람은 더 교활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곧 '걸림돌'을 놓는 것이었습니다(계 2:14). 여기서 걸림돌은 헬라어 '스칸달론'으로, 동물을 잡는 덫을 의미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외부의 공격에는 강하지만 내적인 죄에는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그 민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략으로 모압 여자들을 동원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떠돌며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늘 "언제쯤 안정된 집을 짓고,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을까"라는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그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세워진 집이 있었고, 그 안에는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 풍성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칭"(25:2)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라기보다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는 잔치와 같은 성격의 모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교제나 이웃과의 친교, 혹은 미래의 교역을 위한 관계라고 합리화하면서 모압 사람들의 초청에 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잔치에는 그 신에게 절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아마 이렇게 권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니 같이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다른 민족을 존중하는 의미로 아마 절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 제사는 남녀가 음행하는 것이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이방 우상의 제사 의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씩 소문을 듣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브올에게 가담"(3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원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올에 세워진 바알 신상에게 묶였더라(붙잡혔더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과 바알 제사에 서서히 빠져 결국 바알에게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바알을 자신도 모르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받았음에도, 작은 죄에서 시작해 점점 깊이 빠진 결과,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 끝 모압 평지,
이스라엘은 칼이 아닌 잔치에 무너졌고
작은 타협은 바알의 덫이 되었다.
모두가 울고 침묵할 때
한 젊은이, 비느하스가 일어섰다.
장래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짊어졌을 때
그의 창 앞에서 진노는 멈추고 공동체는 살았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물으신다.
“너는 죄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느냐.””

공동체를 살린 거룩한 분노

그 결과 하나님 진노가 임하여 염병이 퍼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처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백성 가운데 퍼진 재앙을 멈추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 전체를 일괄적으로 처형하기보다, 바알 브올 사건에 실제로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심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방식에 대해 어떤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장면으로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모세가 실제로 가담자들을 가려 심판하도록 한 사법적 집행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회막 문 앞에서 나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악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과 그 가족의 슬픔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 앞에서 울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민 25:6-13)

짖고 있을 때, 시므온 지파 지도층 인물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태연히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미디안은 모압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유혹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삶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므리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던 회중 가운데에서 그를 꾸짖거나 책망하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악이 만연하면 양심이 점점 무너지고,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결국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복된 죄와 무관심 속에서 양심이 무너지고, 죄를 바라보면서도 분노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젊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이 들어간 장막으로 들어가 두 사람을 꿰뚫어 죽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품고 최악 앞에 담대히 일어난 이 젊은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모세의 형 아론의 증손, 곧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는 곧 그가 장차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후보 중 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비느하스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통해 제사장의 자격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지위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그의 손에 든 창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지도자를 처형해야만 전염병을 거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를 단호히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열심으로 일어섰던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대제사장이 되는 영원한 언약의 특권을 주셨습니다(민 25:13). 한 사람의 의로운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온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맺음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패역한 자신과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느하스와 같은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신앙을 버리거나,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며, 비느하스처럼 의연히 일어나 죄악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분노하고 애통하며, 죄악 된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열린신학세미나 취재·후기

단비처럼 내린 말씀의 은혜



지난 4월 27일(월), 본관3층 예배실에서는 기동연 교수님(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구약신학)을 강사로 모시고 제2회 열린신학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창세기: 구원 역사의 서막’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5강으로 이어졌으며, 중간에는 풍성한 점심식사와 간식 시간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쉼과 교제의 시간을 더해 주었습니다.

제1회 세미나가 마태복음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했다면, 이번 세미나는 창세기 전체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개인 성경공부나 일반적인 설교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본문과 본문 사이의 연결, 구속사적 흐름, 원어와 배경에 대한 설명 등은 구약학자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귀한 배움이었습니다.

초연결사회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과 강의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역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온전히 드러 현장을 찾은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 채워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담임목사님은 이사야 55장 6~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단비를 내리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 하늘에서는 조용한 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빗줄기는 하루 동안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해주었습니다.

(편집부)

타 교회 성도이지만 귀한 창세기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깊이 근거한 창조론과 인간론, 또 구원론, 종말론에 대한 토대를 이루게 해주셔서 뜻깊었습니다. 또한 강사 목사님의 적절한 예와 고대 자료도 강의에 조화로움과 적용이 되었습니다. 강사님의 깊은 고찰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교회 권혁화 집사)

창세기의 놀라운 내용을 너무나 쉽고 재미있고 은혜롭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포동교회 김주배 원로목사)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섬겨 주시는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리폼드라이브러리를 개관해 주셔서, 지역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셨고, 이번 신학세미나를 통해서도 깊은 성경 연구에 도전을 주셨고, 강의를 들으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의 3대 모토인 ‘오직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실감하며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가 열릴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힘써주시고, 수고하며 섬겨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광야교회 김찬제 목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게 하시며 주린 영혼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눈부신 초록의 봄날에 열린신학세미나를 통해 선물과 같은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동연 교수님의 창세기 열강을 통하여 참석자 모두가 소통하며 경청하는 배움의 열기가 뜨거웠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덕분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로 가슴 가득 채워 새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온종일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섬겨 주신 열린교회 담임목사님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중부교회 위희영 권사)

‘구원 역사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앞부분을 길잡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남녀를 평등하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음이 3,500년 전에 성경에 천명된 것 ② 사람의 후손을 부모라는 창조주의 대리자를 통해 허락하심으로 부모를 재창조자(recreator)로 존귀하게 여기는 관점 ③ 부부의 기원을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끄심에서 찾아서 인륜이 아니라 천륜으로 보아야 한다는 성경적 관점을 배우게 해주셔서 귀한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푸른초장교회 이용형 목사)

장애인주일 후기

초대받은 자리, 함께한 예배

2026년 4월 19일은 사랑부 교사로 섬기면서 다섯 번째로 맞이하는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사랑부를 잘 모르던 몇 년 전, 교회 마당에서 사랑부 지체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흰 티셔츠를 맞춰 입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행사를 하나 보다’ 하고 무심히 지나쳤었지요. 바로 그날이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사랑부 교사로 섬기면서도 ‘장애인 주일’은 제게 기도 후원 카드를 나눠 주기도 하고, 성도님들께 커피를 대접하기도 하는 여느 행사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년 전, 본관3층 예배실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던 전까지는요.

처음으로 장애인 주일에 사랑부실에서 10시 예배를 드리는 대신 3층 예배실에서 12시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저희 반 학생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은 “너무 떨려요”라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승지 장년3교구
gwenidee12@gmail.com



사랑부 학생마다 다르지만 단 하루,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학생은 낯선 3층 예배실에 익숙해지기 위해 선생님과 함께 전주에 미리 예배실에 와 보기도 합니다. 사랑부 예배와는 다른 분위기에 선생님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지요. 혹시 몰라 화장실에 미리 다녀오는 건 물론입니다.

이번 장애인 주일,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 학생과 함께 당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임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부 지체들을 반기고 환영한다는 인사, 환대의 미소와 박수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의 배려 속에 칼빈파크에 사랑부 학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간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오늘 예배는 어땠는지, 짧은 공과 시간에는 나누지 못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사랑부 교사로 섬기면서 참 낯설지만 좋았던 것은 사랑부 지체들이 먼저 인사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편지 썼어요.” 제가 오래전 교회 앞마당에서 노래하는 사랑부 지체들을 봤던 것도 그들이 먼저 제게 말을 건 것이겠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로의 초대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에도 사랑부 지체들은 3층으로 올라옵니다. 먼저 인사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만남도 누군가 자리를 내준 초대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3층 예배실의 자리를 내주고, 칼빈파크를 내주고, 먼저 미소를 보내 준 그 초대에 우리가 함께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건네는 인사와 작은 환대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초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일에 경험한 교회의 지체 됨이 하루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등대학교(3국) 후기

그 음성을 따라 걷는 삶



이다은 고2

질문 지금껏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라는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단순히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만 여겼다. 그러나 이번 등대학교를 통해 4주 동안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먼저 배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성격이었다. 지금 시대는 단순히 교회에 무관심한 사회가 아니라, 신앙 자체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 마음에 남았던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단순히 세상의 변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었다. 교회가 사랑보다 권위를 앞세우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복음보다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된다는 사실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등대학교(1국) 후기

말과 생각, 삶까지 변화시키는 신앙



주서희 중2

질문 이번 등대학교에 참여하면서 나의 신앙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일 것이라는 기대였지만, 실제로 교육을 들으면서 이단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와 신앙에 대해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시 생각하며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

특히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알고 있던 부분은 더 분명해지고, 몰랐던 부분은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다시 떠올리고 정리해 보면서,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또한, D-day와 V-day의 의미를 배우면서,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던 말들까지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말,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며 집중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큰 변화였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협력하는 시간도 의미 있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하나로 정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함께 신앙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느끼게 되었다.

이번 등대학교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앞으로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또한 이런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이어져 더 많은 친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좋겠고, 나 역시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 ☆

다. 돌아보니 내 삶에서도 사랑보다 다른 것을 앞세운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었다. 특히 전도의 출발점이 '관계'라는 점이 깊이 남았다. 진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삶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더불어 기독교가 말하는 정체성, 용서, 의미와 같은 것들이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세상을 바꾸려는 욕심이나 세상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은혜와 도덕'의 차이에 관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등대학교(2국) 후기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질문 과소비와 충동구매. 한 번쯤이 아니라, 사실 자주 해봤을 것이다. 길을 지나가다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별생각 없이 카드를 꺼내 드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그렇게 산 물건을 막상 쓰지도 않고 구석에 던져 놓는 순간, 그것은 교과서적인 낭비의 표본이 된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지갑은 알파벳 해지고, 통장 잔고에 0이 두세 개씩 사라진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에 인색해진다.

그 모습은 현금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현금을 하려고 할 때,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돈에 미련이 남아 현금 봉투에 넣었던 지폐를 다시 꺼내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보충하면 되겠지'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빈 봉투를 낸다면, 그 순간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수준을 넘어, 이미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금을 낼 때 아까워서 미칠 것 같은 순간이 있다. '이 돈이면 삼각김밥에 컵라면 한 끼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설교 듣는 이 시간이면 피시방에서 더 재밌게 보낼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다.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내 돈 몇천 원쯤 안 드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현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다. 돈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돈을 액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다.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교만에 빠지거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해야 해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마지막 주에는 '어둠 속의 대화' 전시에 다녀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오직 듣고 느끼며 움직이는 경험 속에서, 인도자의 음성을 따라가며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다. 전시를 마친 후, 이 경험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고, 이번 등대학교에서 배운 내용들과 연결되며 깊이 남게 되었다.

이번 등대학교는 무뎠던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한 시간이었다. 순간적인 만족이 아닌,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이겸 고1



또 가끔 이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다. 현금을 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이다. 특히 힘든 순간에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더 잘하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약속하듯 기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함이나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번 등대학교를 통해 나는 모든 재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인색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화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

청년부회심집회 후기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김재윤 청년부 목양2국
trickle0031@naver.com



올해 회심집회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사역 일정이 있어 자연스럽게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을 위한 준비였지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주시는 시간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복음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였고,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심집회 말씀 중 '복음의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되며, 온전한 회개는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 나로부터 시작된 방향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 삶의 방향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죄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시며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반복되는 회개 속에서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게 된다고 하시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삶, 곧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삶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더 깊이 나누기 위해 마태복음을 살펴보았는데,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이후 갈릴리로 가서

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부를 위해 살아가던 이들에게 복음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구원이 그들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 또한 습관적인 회개와 종교적 의식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넘어, 진정한 복음으로 인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시작과 방향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될 때, 비로소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부르신 길에서 동행하며, 맡겨주신 자리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매일 말씀 안에서 기억하며,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를 죄인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며 살아갈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가 단순히 개인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어졌듯이, 저 또한 부르신 자리에서 합당하게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이유와 그에 따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회복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회심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동시에 나의 죄인 됨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 개인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방향을 늘 주님께 두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교회소식



임시 공동의회

지난달 3일 열린 임시 공동의회에서는 임직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선거에서는 시무장으로 후보 3명(노경훈·윤형진·최영재), 안수집사 후보 11명(김상원·김성만·김종성·류정진·박병록·오희열·유영섭·이동환·이인호·이재훈·이종걸), 시무권사 후보 29명(강혜영·금미영·김명자G·김윤희·김지연·김혜정A·김혜정F·김효경·김효숙·김희영·박미선·박미진·박혜진·백미연·신미현·원수연·유경숙·이가현·이길순·이성춘·이승욱·이은하·이희경·장미연·정은숙·최금주·최동숙·최명미·황수미)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모든 후보자가 9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피택되었습니다. 한편, 앞서 3월 25일 열린 임시당회에서는 12명(권영욱·김경순·김명자E·김미경·김윤덕·성백란·안순옥·윤정자·이선옥·이현혜·전소녀·홍순옥)이 명예권사 대상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온가족교회오늘날

지난 5월 24일 주일, 교회에서는 '온가족교회오늘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1~4부 예배에서는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성도들은 가족과 이웃, 지인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구별로 마련된 지정 장소에서 교구 목사님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신간 소개

담임목사님의 저서, <가정, 그 회복의 땅에 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교역자 임명

교회는 5월 1일 자로 사랑부 담당교역자에 김하림 목사님을 임명하였습니다.

주요사역

- 1일(월) 안양교도소 봉사원 모임
- 5일(금) 국내 근거리 농어촌 집중 아웃리치 파송식
- 6일(토)~7일(주일) 국내 근거리 농어촌 집중 아웃리치
- 11일(목)~12일(금) 상반기 교역자 보고회
- 12일(금) 열린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 13일, 20일(토) 예배음악학교
- 14일(주일) 청년부 국별 전체모임
- 16일(화) 노회 체육대회
- 16일(화)~22일(월) 요일별 릴레이기도 헌신자 모임
- 17일(수) 상반기 직원 보고회
- 19일(금)~20일(토) 상반기 당회 수련회
- 20일(토) 부모기도회
- 26일(금) 백향목 상반기 종강
- 27일, 7월 4일(토) 여성성경학교를 위한 교사·학부모 세미나 및 기도회
- 27일(토) 전문인섭김부 특강(주제: 크리스천 창업과 경영)
- 28일(주일) 정기제직회

추천도서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팀 켈러 지음 · 윤종석 옮김 / 두란노

... 책에서 팀 켈러는 독자들에게 용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와 용서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함께 익히고 배울 것을 권한다. 어떤 단계를 밟아야 정의나 자신의 인간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전진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용서에 관한 흔한 오해들을 풀어 주고, 단순히 사회적,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서 비롯된 기독교적 용서의 참 의미와 기원을 짚어 준다. 뼈를 깎는 듯한 용서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면서, 개개인의 삶의 현장과 인생을 직접 뒤바꾸는 데없이 현실적인 믿음의 행위로서의 용서를 알려 준다.(두란노)



새가족

▶▶ 장년

- 노진명(84)
- 유정희(91)
- 임종필(72)
- 차병도(72)
- 박성일(67)
- 김혜영(59)
- 김성은(75)
- 이경미(83)
- 강효진(75)
- 이운정(73)
- 장복순(53)
- 윤가람(84)

▶▶ 청년

- 박종권(95)
- 정성훈(95)
- 양유현(97)
- 임진영(94)
- 마가현(84)

신약아카데미 후기

누가복음에서 만난 광야의 예수님



강예찬 청년부 목양2국
www.eevv@naver.com



저는 입대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열린 뉴스에서 신약 아카데미가 열린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신약신학을 가르치시고 우리 교회의 협동목사님이신 정창욱 목사님이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해주신다고 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은 열린교회가 성도분들을 양육하는 데 마음을 많이 쏟고 있구나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강의는 총 8주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① 누가복음의 독특성과 서론적 사항 · ② 누가복음 1-2장의 역할과 핵심 내용 · ③ 공적 사역의 준비(눅 3:1-4:13) · ④ 갈릴리 사역(눅 4:14-9:50) · ⑤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눅 9:51-19:10) · ⑥ 천국의 비밀과 예수님의 비유 · ⑦ 예수님의 사역 · ⑧ 예수님의 체포와 고난, 그리고 부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준비 중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는 사건(눅4:1-13)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십니다. 그리고 족보를 통해 아담의 아들(곧 인자,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 후 성령님께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

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교수님께서서는 세 가지 시험뿐만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시험받으셨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위로를 얻었던 것이 있어서 정창욱 교수님의 누가복음 4:3-4 주석 해설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굶주리도록 놔두시지만 결국 만나를 먹이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자세임을 가르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광야에서 성령에 의해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험을 받으며 굶주리고 있었다.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만나를 공급하셨듯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리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 시험은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절대 신뢰에 대한 시험이었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면, 결국은 아들인 예수님을 보호하고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신적 존재이며, 동시에 아들이 아버지 하

나님과 관계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정창욱, 『한국신약해설주석 3A: 누가복음 1:1-9:50』)

저는 대략 2년 전 회심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어 살아가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아서 낙심할 때도 있고 상황을 해석하는 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는 것을 보며 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 이끌리어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시험이 찾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에도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바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며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아 그 빛을 널리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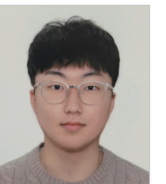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글을 마칩니다. ☆

선교학교 후기

한 거지가 전하는 빵의 소식



한성모 청년부 목양1국
031102hsm@naver.com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청년부 목양1국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한성모입니다. 저는 2026년 캄보디아 해외 아웃리치를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섬김이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 선교학교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 섬김을 이어오며 가끔은 사역이 '일'처럼 느껴지고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초대받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 해 나가고 있어서 사역이 진행된다는 교만한 마음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아닌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라는 말씀을 통해 이번 아웃리치 섬김이 제게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선교가 의무가 아닌 '기쁨의 폭발'로 시작되었다는 설명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배우며 '우리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선교의 관점이 인간의 순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외부인 선교사의 시선을 넘어, 내부 현지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세계 기독교의 흐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다"라는 말씀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조급해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계시며 저는 그저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영학적 수치로 사역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는 저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저의 섬김과 삶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확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최고의 선교사이셨음을 배웠습니다.

나를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자, 자기중심성 속에 갇혀 우월주의로 가득했던 저의 교만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적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다녀온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제게 단순한

유적지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해 삶을 던진 분들의 묘비 앞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과거 언어의 장벽이 높았던 시절, 중국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 수고하셨던 선교사님들과 선조들의 노력을 보며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편안하게 복음을 접하고 있는지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묘원을 둘러보며 가장 가슴 깊이 남은 문장은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천 개의 목숨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우리나라를 위해 모든 생명을 바치고 싶다는 그 고백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성찰과 함께, 나의 능력이나 결과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학교를 마치며 거창한 다짐보다는 작은 소망 하나를 품어봅니다. 선교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과 같이, 저 또한 제가 발견한 사랑과 복음을 겸손히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진정한 섬김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새생명전도학교 후기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향해 울었습니다



고민경 장년1교구
lovely9431@naver.com

평소 술을 즐기던 저는 교회에 가기로 한 전날까
지도 술을 마셨습니다. 숙취 때문에 교회에 가
기 싫었지만, 전도해 주신 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배
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배를 드
리고 난 다음 날부터 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평
소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던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라는 생각
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의 존재를 부정하며 '정말 계신다면 저에게 나타나 주세
요.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길을 걷다가 따사로운 햇살과 자
연을 마주하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가슴 깊
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순간 '하
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에 한참을 울었
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배
의 자리에 나아가며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 새
생명전도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가 기대했던 성경공부라기보다는 전
도 방법을 배우고 직접 노방전도를 해보는 과정이었습니
다.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져 몰
래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는 믿음이 좋
은 사람만 하는 일이라고 여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
자리에 앉아 계시던 초문의 권사님께서 제 두 손을 꼭 잡
으시며 '같이 끝까지 해봐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2주 차 수업 때는 비가 오면 전도가 취소된다는 말을
듣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날씨부터 확인했습니다. 술
직히 비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피하고 싶
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씨는 너무도 맑았고, 그날부
터 저는 잊을 수 없는 만남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
저 91세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하
나님이시고 뭐고 나는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시며 믿음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
한 채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만 하던 제가 그 순간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할머
니, 하나님 정말 계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하나님 믿으
셔야 해요." 제 말이 할머니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을
까요. 할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
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
팠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제 모
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주 차 수업을 앞두고는 무릎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
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릎으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낮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전도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놀
랍게도 수업 당일 이 되자 무릎이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어린이가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도학교를 끝까지 마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어가

를 끌며 폐지를 주우시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미 전도
시간이 끝난 후였기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교회
에서 나눠드린 건빵을 입에 털어 넣으시는 모습을 보고
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복
음을 전했지만, 전도지는 폐지 더미 속에 버려졌고, 할아
버지께서는 복음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순간 말로 다 표
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밀려왔고, 하나님도 나
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저는 조용히 할아버지 주머니에 돈을 넣어드리며 말
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얼마 안 되지만 음료수 사 드세
요.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꼭 믿으세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요
즘 저는 제가 만났던 두 분을 아직 데려가지 마시고, 주님
께 돌아올 시간을 더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도할 용기도 부족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
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
음이 아프고, 그들이 늦지 않게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
히 바라게 됩니다.

첫날, 수업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저는 이제 이
번 여름 국내 아웃리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말과 행동일지라도, 저 같은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
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에 빚진 자
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국내 근거리
농어촌 집중 아웃리치**

일정
6월 6일(토) ~ 7일(주일)

- 장년1교구: 매향교회 (경기도 화성)
- 장년2교구: 반천교회 (강원도 정선)
- 장년3교구: 덕천교회 (강원도 정선)
- 장년4교구: 상동교회 (경상북도 예천)
- 장년5교구: 여량교회 (강원도 정선)
- 장년6교구: 영광교회 (충청남도 금산)
- 장년7교구: 북부교회 (경상북도 상주)
- 청년4국: 구상교회 (충청남도 금산)

곰곰이 생각

불변하는 것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도덕법이다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자연법칙은 때로 거스를 수 있어도, 도덕법은 변할 수
없습니다. 자연법칙은 세상이 생겨난 원리와 과정을
담고 있지만, 도덕법은 세상이 생긴 이유와 목적이 담
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칙은 중력을 거슬러 로켓을 쏘듯
떨어지는 사과를 잡듯, 게임이 가능하지만,



도덕법은
엄마의 사랑처럼
불변하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도덕적 목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법칙을 거슬러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눈을 뜨게도 하신 분이,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살리셨다.

과학은 불변하는 분을 찾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컷 말씀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이성희 장년7교구
joycelee0305@gmail.com



제가 중국과 홍콩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국 생활을 여행하듯 나그네처럼 지내고 싶지 않았고 대중대중 교회를 편하게 출석만 하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기에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가운데 직장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를 낳게 되었고, 그 무렵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 홍콩에 법인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출장이 많았던 남편은 아이들을 홍콩에서 키워보자 제안했고, 우리 가족은 이민 가방 몇 개를 들고 중국 선전(ShenZhen)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무서웠지만 그것도 잠시, 중국에서 만난 한인교회는 고향같이 따스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처음 맛본 커피믹스는 너무 달콤했고,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집사님들의 친절에 감동하여 온갖 모임에 참석하여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큰아이들이 홍콩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홍콩으로 이사 갔지만, 주일마다 새벽에 국경을 넘으며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웠던 종교 생활은 감시 대상이 되고, 종교 서적을 홍콩에서 받아 교회에 전달하곤 했는데 입국심사 때 가방 검열을 받을 때면 간담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급기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인교회들도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홍콩 시위와 코로나까지 겹치며 결국 모든 것이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주말마다 주일 준비와 교회 생활로 분주하던 일상은 사라졌고, 예배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마주하는 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편안함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을 내왔는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속에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자'라고 다짐하며 인터넷으로 열린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린교회는 이전부터 목사님의 책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예배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군더더기 없이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형식이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뿐 아니라 열린신문과 광고 포스터 하나하나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집중한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내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예배부에서 봉사해 왔기에 그런 것들이 더욱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린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어지는 동안, 제 안의 어두움은 서서히 걷혀갔고 바닥이 드러난 듯 메말라 있던 마음도 말씀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한국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설렘을 안고 처음 찾은 열린교회는 이미 마음으로 익숙해져 있어서인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분당에서 대중교통으로 교회에 오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멀고 불편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2025년 주바라봄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울며 회개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나의 헌신으로 보상받으려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라.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나의 삶으로 세워 갈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게으름과 현실에 타협하려던 제 마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말씀 안에서 제대로 훈련받아야만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내보낼 수 있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곧 나의 삶이자 사명이라는 확신으로 단호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을 깨우기 시작했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그리고 좋은 성도 되기.' 이것이 성장반을 시작하며 품었던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낮가림이 있고 말주변도 없는 터라 새로운 환경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지만, 시작한 지 2주 만에 그런 부담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성장반에서 함께한 분들은 서툰 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셨고,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담담히 자신을 돌아보며 죄와 싸우려는 지체들의 굳은 다짐은 두려움 가득했던 제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과제로 주어진, 매일 한 구절의 성경 묵상 시간은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했고, 확신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 생겨나는 작은 의문들도 주일 설교 속에서 명쾌한 답을 듣게 되는 놀라운 경험도 하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주일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해져 있던 신앙의 관성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 있는 성도로 빚어져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역을 배정받고 목양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학구적이면서도 하나님 사랑에 진심인 구역장님, 따뜻한 구역 식구들, 그리고 믿음의 성숙함이 느껴지는 목양팀 팀장님과 사랑스럽고 유쾌한 팀원들 덕분에 매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더 큰 행복과 보람, 그리고 열심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감사함으로 공동체와 함께할 때 비로소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무언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요. 한국에서 열린교회와 함께한 2년은 지치고 공허했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으며, 성실하고 진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회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한 김하림 이규희 최영광 조일권 오세광 김민성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이 찬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해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순이
- 교육전도사 최현성 박주광 원준식 광승훈 권세원 이해선 한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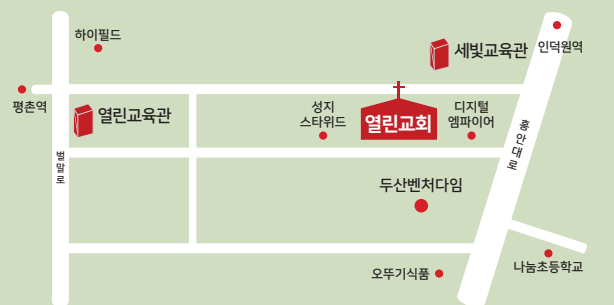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 A국: 1 unit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우
-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직장인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교회학교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교육실1)	
사랑부(청년부)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4)	
외국인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교육관 5층 외국인실)
백향목 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1)
테마학교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2)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면 됩니다



의무감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움직이는 삶.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